

3. 제2이사야의 시대적 배경

제1이사야가 시로-에프라임 동맹과 산헤립의 침공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제2이사야는 유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제2이사야가 활동하던 즈음, 바빌론은 세력이 약화되고 근동의 새로운 강자로 페르시아가 부상하고 있었다. 당시 바빌론은 내정의 분열로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이러한 혼란을 틈타 페르시아의 키루스는 메디아와 리디아를 제압한 다음 엑바타나를 점령하면서 바빌론까지 정복하게 된다. 새롭게 부상한 키루스는 영리하게도 속국민들의 민심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 과제임을 깨닫고 그 일환으로 과감한 개혁정책을 시도한다. 바빌론의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에 지쳐있던 이들에게 고유의 종교와 문화를 인정해 줌으로써 독립성과 자치성을 보장해 준 것이다. 민심은 당연히 키루스의 온건관대 정책에 대대적인 지지와 호감을 드러냈고, 유대인들 역시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고백할 정도로 그를 환영한다. 이사 44,28-45,8에서 키루스는 이스라엘을 구할 영웅, 혹은 메시아로 고백되는데, 바빌론의 네부카드네자르가 심판의 도구로 이해되었다면 키루스는 구원의 도구로 이해된다.

4. 제2이사야의 신학적 주제

(1) 구원과 해방 - 제2의 출애굽

제2이사야 전반에 부각되어 있는 주제는 예루살렘 귀환에 대한 구원과 해방의 메시지이며, 이러한 해방은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킨다. 바빌론에서 해방됨을 ‘출애굽’과 연결시켜 이해한 것이다. 귀환을 ‘제2의 출애굽’으로 이해하는 전승은 이러한 맥락에 근거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주제는 전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하느님께 대한 것이다. 제2이사야는 이러한 해방이 가능했던 이유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야말로 이방인들까지(키루스의 경우) 자유자재로 조정하실 수 있는 전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시라는 진리에 근거해서 이해한다.

(2) 만민구원사상 - ‘종’ 개념의 부상

우주의 창조주로서 하느님 이해는 ‘만민구원사상’을 부상시켰다. 이스라엘만이 하느님 구원의 대상일 수 없고 키루스 같은 이방인도 하느님 구원사업의 직접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각성이 새롭게 대두된 것이다. 더욱 유배라는 고통의 자리는 이스라엘의 자의식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화시키는데, 이전의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하느님의 ‘선민’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배타적 자부심은 유배 체험을 통해 ‘종’으로서 자신을 이해하는 차원으로까지 정확된다. ‘선민’이라는 독선적 자의식이 정확되고 성숙되면서 스스로를 하느님의 ‘종’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유배를 통해 거듭나게 된 이스라엘의 ‘재창조’였다고 할 수 있다.

‘종’이라는 자의식은 이스라엘의 의식 안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데, 유배 이전의 이스라엘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어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도식으로 세상과 자신들을 이해해 왔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다고 이해하게 된 때문이다.

“성경 경시 및 암송대회 예상문제 - 복음서편” 7차

61. (마르 7,9-13) 다음에 들어갈 단어는?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 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62. (마태 15,15-20) 다음에 들어갈 단어는? 각 1점 (살인, 간음, 불륜, 도둑질, 거짓 증언, 중상)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나 배 속으로 갔다가 뒷간으로 나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 (), (), (), (), ()이 나온다.

63. (마태 15,34-38) 다음에 들어갈 숫자는? (3) ① 다섯 ② 여섯 ③ 일곱 ④ 여덟 ⑤ 열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자, 그들이 “일곱 개가 있고 물고기도 조금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빵 일곱 개와 물고기들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000 바구니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사천 명이였다.

64. (마태 16,7-11) 다음에 들어갈 단어는? (2) ① 겨자씨 ② 누룩 ③ 단식 ④ 자선 ⑤ 기도

제자들은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하며 저희끼리 수군거렸다.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너희끼리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빵 다섯 개로 오천 명이 먹은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그리고 빵 일곱 개로 사천 명이 먹은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내가 빵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님을 어찌하여 이해하지 못하느냐?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의 000을 조심하여라.”

65. (마태 16,4) 다음에 해당하는 인물과, 하느님께서 그 예언자에게, 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던 도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요나, 니네베)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징은 분별하지 못한다.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000의 표징밖에는 아무런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66. (마태 16,13-16) 예수님의 물음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67. (마태 16,21-23) 다음에 들어갈 말은?

그때부터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 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68. (마태 17,1-4) 다음에 해당하는 인물은? (4)

옛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얗졌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00000께, 또 하나는 00000께 드리겠습니다.”

① 모세, 이사야 ② 이사야, 엘리야 ③ 엘리야, 아모스 ④ 모세, 엘리야 ⑤ 이사야, 예레미야

69. (마태 17,5-8) 다음에 들어갈 문장은?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70. (마태 17,10-13) 다음에 해당하는 인물은? (4) ① 즈카르야 ② 이사야 ③ 모세 ④ 엘리야 ⑤ 예레미야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 학자들은 어찌하여 0000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과연 0000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0000는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그것이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암송 구절

3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태 18,3)

32.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마태 18,14)

33.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마태 18,22)

34.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마태 18,35)

35.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마태 19,21)